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다음 주일(9월 3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총회를 위해 헌금합니다.
- 10월 첫째 주일에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준비 교육을 위해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멧쟁이학교 2학기 개강여행이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지리산 종주로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40 - 35 호

2023년 8월 2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태일 목사 · 이월영 사모 가정 (감사)
 정재훈 목사 · 장영미 전도사 가정 (감사)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장영미 전도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 : 이 시대의 메시지이다

1993년 8월 2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의 산디아고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제1분과에서 주최하는 제5차 세계대회가 열렸다. 이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으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당시의 세계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소련도 붕괴된 직후로, 사람들은 곧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장치에 의해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는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지역과 인종간의 전쟁은 더 많아지고, 지구촌의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졌으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무역마찰과 문화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맞으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가?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런데, 그 모임의 주제가 "신앙과 생활과 증거로부터 코이노니아를 지향하여"였다. 주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사회구원을 위해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로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선교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의 답으로 주신 교회,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인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로 돌아서야 한다는 뜻이다.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을 우리가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교회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인 코이노니아의 삶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 2:47의 후반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었다. 나가서 전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찾아 온 사람들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보고 복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처음 교회처럼 산다면, 왜 사회와 세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교회가 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성장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 상실, 그리고 인간소외의 문제에 부딪혔다. 또 최근에는 국제 통화기금시대를 맞아 실업과 좌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에 의한 민족의 분단과 아픔, 갈등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역의 큰 방향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로 삼아,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을 교회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발췌

한주간의 말씀

“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
<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83 414 / 66

기도 :

성경 : 에스라 8장

제목 : 에스라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1. 1-14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

해석: 하나님의 회복은 성전과 율법(생활)을 포함하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

적용: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내적인 모습(마음)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2. 21-23 에스라가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다.

해석: 신앙인, 그리스도인, 교인은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임을 잊지 말자.(거룩한 부담)

3. 24-36 에스라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해석: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다.

적용: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알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선하신 이끄심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어린이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의정부 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학교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만든 놀이를 친구들이랑 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놀이로는 카드게임 등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집에 있는 간식 등을 놀이의 상품으로 걸었다가 선생님들께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코딩을 접하게 되었고 11월엔 유니티 게임 개발 엔진을 보게 됐는데 흠뻑 빠졌습니다. 마치 자아실현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몇 번 만들어 보다가 어릴 때처럼 코딩으로 저만의 놀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출시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게임을 만드는 목적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 주려는 '놀이'에서 광고로 얻는 '수익'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입으로 처음 시작부터 직장인 평균 월급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자동 수입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음료수 1병 살 정도의 작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났기도 했습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변에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금액에도 감사하게 됐고 처음부터 잘 나가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들 정도의 지능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계획만으로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짓는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푸른꿈사랑방 홍지원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99 : 5, 9
2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3 : 23-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02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20 : 1-16
546

“ 그리스도인의 일 ” 정재훈 목사

설교자
비움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8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어람 한대훈/ 봉헌위원 : 하경임/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린이와 부모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적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중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온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같은 돈을 받았습니. 세상의 기준에서는 몹시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미 충분한 비용으로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은혜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계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한미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개학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눈을 맞추며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조금 까매졌고, 몸집과 키가 자랐습니다. 다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방학동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모임 후에 공동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무성하게 풀이 자란 꾸러기밭을 보며 앞으로 할 일을 챙겨보고 연신 꼬리를 흔드는 루에게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가며 방학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해온 사진과 그림을 보며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기억을 되새기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꾸러기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온 것입니다. 만 다섯 살 이 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록이를 비롯한 아홉 꾸러기들이 2학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24일 목요일에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만나서는 방학하기 전보다 피부가 까매지거나, 키가 컸거나, 머리가 길거나 짧아졌거나, 어딘가 몸가짐이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반가움을 가득 안고서 시작된 2학기 첫 시간에는 반별로 모여서 방학 과제 검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중에 더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영광의 순간'과 '보람과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주

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년별로 모여서 곧 있을 학년별 여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때 썸부터 "배고파요~!"를 외치는 친구들이 유난히 많더니,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니 요리선생님들의 일품 요리 앞에서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학교 밥이 정말 맛있어요!', '방학동안 이 밥이 그리웠어요!'라는 말을 하면서요.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출마 인사를 하는 친구들은 떨리고 긴장되지만 준비한 인사말을 잘 발표하였고, 투표하는 친구들은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민상 회장, 최시현 총무, 김민지 서기가 2학기 어린이학교를 잘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공동체 트랙이 어린이들의 즐거움으로 뻗어갈 기도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개학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요일에는 멋쟁이들이 개학을 앞두고 예비소집일로 모였습니다. 방학 중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꽃을 피우고, 교육관을 구석구석 청소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2학기는 특별히 지리산으로 시작됩니다. 지리산 모듬이 발표되고,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도 개학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학기 준비의 마지막 기간에 회의를 통해 시간표와 학사일정, 지리산 계획을 다시 점검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도, 해당 나이의 특성도 고려하며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일지 여러 의견을 개진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멋쟁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2학기라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돈희 >

배우는 자세

8/17-19까지 포항 양포 YPC수련원에서 2023년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11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참석함으로 많이들 기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한공협 모임에 참석하여 각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고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외부공동체와의 교제는 우리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이번에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공협 모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한국 공동체들의 역사가 짧기에 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초기의 많은 어려움과 해결과제를 안고서 오직 하나님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데, 모임에서 여러 공동체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면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공동체의 대안은 무엇인가? 가 주제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에서는 거의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에 공동체에서 희망을 보았고 답이 된다는 것에도 공감했습니다. '실천적 사랑이 중요하다. 삶은 삶으로밖에 전승되지 않기에 부모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가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능력주의, 자기의, 분노, 미움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공동체를 허무를 역할이 된다' - 등 많은 의견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깨달음에 하나님나라에 관하여 부족함을 고백하며, 배움에 새롭게 도전해보자고 다짐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수요 정오기도회 : 하반기 시작 기도회>

인 도 : 정태일 목사

찬 송 : 449, 357

성 경 : 누가복음 15장 1-7절

말 씬 :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세계인의 염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가 사회의 안전(문지마 살인, 살인예고 글)을 기도.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학교 개학. 지체들의 건강, 생업, 해외출타 등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수요 정오기도회 시간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하반기 시작 모임을 가졌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모임은 함께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간 무성히 자란 풀도 정리하고, 학교 개학을 위해 청소와 주변 정리로 바쁘게 지낸 한 주였습니다. 아침 기도회, 수요정오기도회, 공동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되면서 느슨해진 마음과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하반기 사랑방은 더욱 따뜻한 대접들이 많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